

투데이 칼럼

‘언행일치’ 형의 사람이 되자

언어는 지력과 같고 말 속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에 따라 그 말에 온갖 것들이 달라 붙는다.

GE의 전 회장 잭 웰치가 그렇게 강조했던 리더십의 첫째 덕목이 바로 솔직한 표현이다.

말은 인격이며 그 사람의 향수이다.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헤아린 뒤 말을 해야 하는데 사자성어에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이 있다. “모름지기 세 번 생각한 다음에 말하면 실수와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도덕권에 나오는 “다언삭공불수중(多言奪功不守中)”이다.

말이 너무 많으면 공지에 돌릴 수 밖에 없으니 오히려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이다.

말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먼저 머리와 가슴에 담아두고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차선은 말을 하더라도 꼭 할 말을 잘 골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말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을 하면 반드시 행동을 실천하는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격(人格)을 나타내며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로 ‘인품(人品)’으로 쓰인다.

“품(品)”은 “입구(口)”가 세 개 모여 이루어졌는데 즉,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인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서도 마음의 소리, 그 사람의 체취, 고유한 향(香)이 뿜어져 나온다.

‘언위심성(言爲心聲)’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감동을 주는 말은 화려한 어휘와 화려한 화술로 치장하는 말이 아니라 말 속

에 진심이 담긴 말이다’라는 의미이며 최고 값있는 말은 진정성의 말이다.

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 비로소 온기를 얻고 언행이 일치할 때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강인한 생명력을 얻어 살아있는 최고의 말이 된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에 더 넓게, 더 깊게 자리를 잡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무실역행(務實力行)’의 가름침이 있는데 ‘무실’은 ‘참되게 힘쓰자’는 것이다. ‘역행’은 ‘뒤로 미루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 하자’는 의미이니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크면 조직생활과 인간관계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유형 1위는 ‘말과 행동이 다른 동료’인데 매번 ‘나중에 할게’, ‘호연장담’만 하는 동료라고 한다.

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 그것은 바로 ‘언행일치’ 말에 대한 신뢰성이 크다.

그리고, 말이 지나치게 많으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스피치의 1초 3초의 화법으로 입박으로 깨내야 하고 ‘간결하게 세심하게’라는 화법을 사용하여 간결하면서도 구체성이 있어야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도 있다.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입에서 곧 우리의 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스피치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언행일치’로 호감 받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어 보자.

스피치기법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법이니 인위하게 생각말고 스피치 훈련력습에 참가하자.

사설

전북은 광주·전남의 들러리가 아니다

전북도는 계속해서 독자권역 행보를 보여야 한다. 제5차 국토종합 계획에서 전북권 별도 편성을 요구하기로 한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2020년에서 2040년까지 장장 20년에 이르는 장기 비전 실현에 제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고 한 것 말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정부가 아직도 전북을 홀대하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 씁쓸하다. 역대 정부들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전북 도민의 요구에 공감한다는 말이 실속 없는 대답이었던 것이다.

군산 경제가 몰락한 지 오래 됐건만 정부쪽 고위 관계자들에게 급할 게 하나도 없는 변화의 일로 무시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해한 여당 대표의 발언도 식해도 과언이 아니니 스피치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언행일치’로 호감 받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어 보자. 스피치기법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법이니 인위하게 생각말고 스피치 훈련력습에 참가하자.

대우를 하고 있음이 역력하다. 전북도는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정부 측 고위 인사의 발언에 따라 다른 것들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도민과 함께 그려온 청사진이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도민들은 지금 감정이 상해 있다. 도민의 희망인 군산형 일자리가 좌절된다면 도민의 섭섭함이 분노가 되어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전북이 오래도록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 신세인데 결단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매우 낙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하거나 발전 보폭이 없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은 미미하기 이를데 없다.도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 전북도는 전북이 독자 권역임을 계속 강조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전북의 뒤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시켜야겠다.

제목 찾기와 제목 지키기 병행해야

제목 찾기보다 제목 지키기에 생각이 깊어지는 요즘이다. 전북도가 도민 앞에 거창하게 발인한 그대로 제목 찾기에 성공하려면 좀 더 다부져야겠다. 보다 역척스러워야 한다는 이야기다.도내 고위 공직자들의 행보를 보면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 우리 지역이 웬만한 고장이 아니라라는 불만이 갈수록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목 찾기와 관련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도내 고위 공직자들이 느끼는 것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

전북도는 제목 찾기와 함께 제목 지키기도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절박한 당면 문제이다. 제목 찾기는 고사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도민들은 심사가 괴롭다. 도지사들 비롯해 단체장들은 도내 서민들의 입장을 여지사지 해야 한다. 전북도가 제목 찾기를 말하는 것과 비례해 제목 지키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정말이지 전북도가 이렇게 무기력해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민에게 제목 지키기란 무

엇인가. 그것은 길게 생각할 것도 없다. 도민의 공동 이익 지키기이다. 그러므로 제목 찾기도 제목 지키기이든 도민들에게 피부로 감지되지 않는 것이라면 결코 제목 찾기도 아니고 제목 지키기도 아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 전북 발전의 방향은 분명하다. 전북도는 매사에 제목을 미리 파악하고 제목 지키기 대상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제목을 제대로 옮겨주는 게 미래 비전에 힘을 보태는 거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에 애착을 보여야 한다. 제목 찾기와 함께 제목 지키기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농수산대학을 분교 시켜야 한다는 외부 인사의 발언에 도민들이 일제히 떨치고 일어나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전북도는 긴장해야 한다. 제목 찾기도 제목 지키기도 도민을 상대로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전북 지역은 오십년 넘게 그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그 변화된 면면들도 초라하기 그지 없다.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거주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이유를 전북도는 제대로 짚어야 한다.

기고문

소방관의 평생 동반자이자 시민들의 수호천사 ‘의용소방대’

119안전센터에서 화재경보로 근무할 때 현장에서 만나는 항상 수호천사 같은 분들이 계셨다. 한참 화재를 진압하고 있을 무렵 누군가 곁에 오셔서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슬그머니 내밀며 “수고하십니다. 이거 드시고 하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방서 들어온지 얼마 안됐을 때 나는 도대체 저분들은 누구지? 동네 이웃주민인가 정도만 생각했었다. 내가 처음 만난 의용소방대원들의 첫 이미지였다.

화재 현장은 항상 예측불허이다. 한 시간 안에 꺼지는 불도 있지만 며칠을 진압하는 경우도 있다.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까지 긴급하게 출동하다보면 작은 것까지 준비할 시간이 없다.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지치고 피로도가 쌓이기 십상이다. 대원들끼리 돌이키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 누군

가의 도움의 손길이 요구된다. 그때마다 그 관찰 의용소방대 대장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물품들을 보급해주신다.

의용소방대 임무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조 업무의 보조 및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임명조건에 부합되어 선출된 의용소방대원들은 정기적으로 기본교육 36시간 및 전문교육 12시간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육성하고 있다.

군산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119수호천사공연팀을 신설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마네킨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중요성 및



임 수 진

군산소방서 발효구조과

방법 등을 일반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기존의 영상물 및 책자로 홍보하는 것보다 공연 및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전달하다보니 집중도와 이해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 같다. 그뿐 아니라 공연팀 구성원 개인들의 만족도도 높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

독경보감지기)촉진단을 꾸려 무상 보급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1조로 구성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소화기배부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1차 읍면지역 502세대를 우선 지급하고 2차 동지역을 중심으로 1,200세대 배부 예정이다. 의용소방대 특성상 이웃주민들과 교류가 잦아 소방시설관리 및 유지가 손쉬울 것 같은 장점을 살려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는 내가 사는 군산지역 및 소방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평생 동반자이다. 의용소방대 담당자로서 너무 뿌듯하고 사명감을 느끼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과 소통을 통해 좀 더 발전 할 수 있는 군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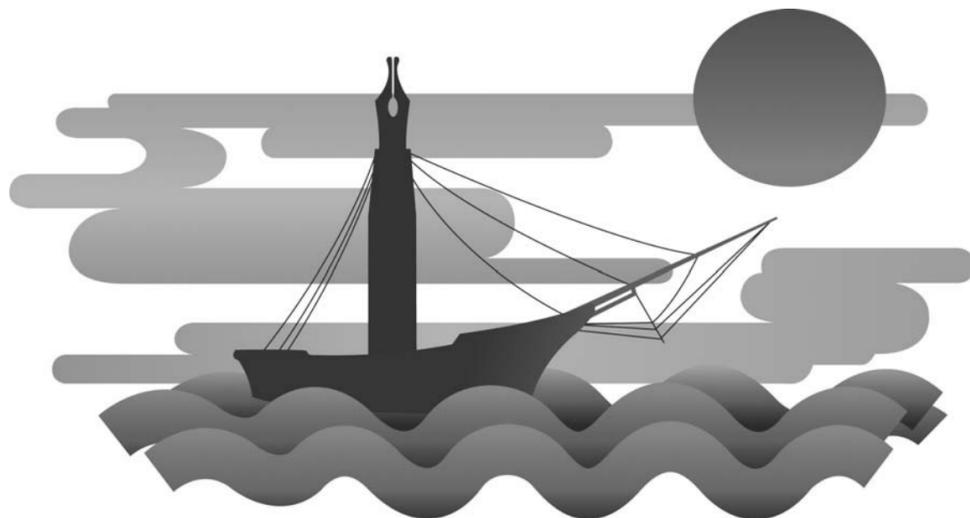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